

# 내 턱뼈가 녹았다고?



| 김상우 / YTN 차장

환자는 더 이상 취재 대상 그것만은 아니다.  
 나도 언제든지 또 저들처럼 병상에 누울 수 있다는 것.  
 그동안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질병이  
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.  
 그리고 그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.

## 초

록색 수술복을 입은 그들은 마치 저승사자 같았다. 그들은 복잡  
 잡한 도시의 택시운전사처럼 복잡한 병원내에서 이동침대를  
 잼싸게 끌었다.

'내 몸을 감싼 초록색 수술실 담요, 내가 이 담요를 제대로 제끼고 다시  
 이 입원실로 되돌아 올 수 있을까' 하는 우려의 상념도 잠깐, "하나부터  
 열까지 세세요"라는 명령이 떨어졌다. 나는 열은 커녕 셋밖에 세지 못하고  
 곧 바로 깊은 잠에 빠졌다.

지난해 성탄절 이브. 서울 강남의 큰 치과병원에서 취재를 끝내고 시간  
 이 잠시 나 카넥스라고 불리는 3차원 엑스레이로 내 치아 상태를 찍어봤  
 다. 수개월 전 연세대 치과 병원에서 '사랑니의 세계'라는 주제의 리포트  
 를 할 때 다뤘던 최악의 환자 사례가 그 이후 계속 웬지 늘 마음에 걸렸기  
 때문이다. 사랑니가 제대로 나지 못해 턱뼈가 심하게 사라졌을 뿐 아니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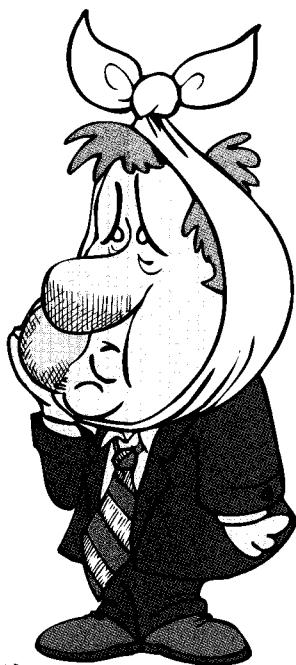
물혹까지 생겨 구강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감염 질환까지 생긴 환자 모습에 난 보도를 하면서도 충격을 받았다. '세상에 사랑니가 뭐길래' 별희한 질환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

물론 그 리포트를 할 때 담당 의사는 이 경우 통증 없이 찾아오는 최악의 상태라고 덧붙이긴 했지만, 당시 나는 40살이 넘을 때까지 사랑니로 인한 고통을 전혀 겪어 본 적이 없어 내 치아 상태가 궁금했다.

그러나 나는 2년전 회사 앞에서 3차원 아닌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사랑니가 나지는 않았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다 평소 음식을 먹으면 지나칠 정도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 있어 '치아 좋네요'라는 평가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거의 100% 확신했다.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? 그 희귀질환자처럼 내 턱뼈가 골프공만큼 뺨 뚫린 사진이 나온 것이다.

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눈을 의심했다. 설마하며 다시 한 번 찍었다. 역시 똑같이 나타났다. 정말 믿을 수 없었다. 당일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지만 연세대 치과병원으로 달려갔다. 다시 찍어봤다. '병원쇼핑' 문제 있다고 환자들의 잘못된 의료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자주 써온 나도 역시 '병원 쇼핑'을 한 것이다.

수술대에서 깊은 잠을 잔 뒤 나는 난생 처음 일주일 넘게 환자복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. 2년 넘게 병원을 드나들며 취재대상으로 삼은 환자가



되버린 것이다. 아주 드문 케이스라는데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내가 걸렸을까?

사랑니는 시기적으로 남녀가 이성에 눈을 뜨고 사랑하려고 할 무렵에 나오는 '이'라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, 사랑을 제대로 못해봐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? 그렇다고 내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도 아닌데, 원망스러웠다.

특히 2년전 일반 엑스레이 찍었을 때 내 사랑니에 대해 판정을 한 그 치과 의사가 매우 원망스러웠다. 그 때 그 치의사는 '별로 통증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'고 말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. 물론 그 치의사는 워낙 드문 경우인데다 3차원 사진을 찍을 경우 추가 비용이 드는 등 환자 편에서 더 생각했을 것이다.

퇴원 후 나의 일상은 크게 바뀐게 없다. 보통 때처럼 병원 취재를 한다. 하지만 환자들을 보는 눈은 180도 바뀌었다. 환자는 더 이상 취재 대상 그것만은 아니다. 나도 언제든지 또 저들처럼 병상에 누울 수 있다는 것 그동안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질병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그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. 당국의 일방적 자료만 인용하며 비판했던 '병원쇼핑' 그것도 선진국과 다른 우리 의료 현실에서 더 이상 나무랄 문제가 아니라는 것. 이런 생각들은 아프면서 성숙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. P.P.P.K